백두산
40호 - 주체91(2002)년 5월 24일 (금)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정일영도자,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

태천3호청년발전소와 구성공작기계공장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태천3호청년발전소 건설자들과 구성공작기계공장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지난 18일 새로 건설된 태천3호청년발전소와 구성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발전소를 일떠세운 건설자들과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실현에서 일대혁신을 창조한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이들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들이 21일 태천3호청년발전소와 구성공작기계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됐습니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자나깨나 그립던 영도자님을 일터에 모시고 영도자님의 감사까지 받는 커다란 영광을 지닌데 대해 감격에 넘쳐 말했습니다.

연사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새기고 영도자님께서 펴주신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2일

김정일장군님 정치아래 이북은 민중복리의 별세상

인천에 사는 김재식씨

인천에 사는 김재식씨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이북을 민중복락의 별세상으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모여앉은 자리에서 최근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경악케하는 강력범죄니 각종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남은 각종 사회악이 창궐하는 사람 못살 생지옥이다. 그러나 한 지맥으로 잇닿은 저 이북은 이남과 판이하다. 거기서는 민중들을 경시하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악독행위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민중중심의 참세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따로 없이 모두가 평등한 이북 사회야말로 그 어떤 사회악이 발생할 수 없는 으뜸가는 이상사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이북이 이렇듯 으뜸의 세계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김정일**장군님을 영수로 모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민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도리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북은 영수와 민중이 일심일체화되어 있다. 이런 사랑의 대가정에서 사회악은 생겨날래야 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난 주민들은 한결같이 자기들도 그런 분의 정사를 받으며 살고 싶다고 절절한 소원을 터놓았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2일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줄 선물옷 견본을 보아주시는 **김정일**장군님

수령형상소설 창작 활발

4.15문학창작단 10여편 창작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푸른 산악≫, ≪총검을 들고≫, ≪계승자≫를 비롯한 10여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소설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혁명활동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를 실재한 력사적 사실들에 기초하여 감동깊게 형상하고 있다.

총서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조선에서 창작된 수령형상문학의 대표작들이다.

4.15문학창작단에서는 장편소설 ≪1932년≫(1972년)을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 작품으로 내놓은 이후 ≪혁명의 려명≫, ≪백두산기슭≫, ≪봄우뢰≫, ≪영생≫을 비롯하여 주석의 혁명업적을 주제로 한 수십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특히 주체86(1997)년에 창작된 장편소설 ≪영생≫은 독자들속에 커다란 감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소설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둘러 싼 조미사이의 대결과 각국의 동향 등을 폭 넓은 사료들로 안받침하면서 첨예한 군사정치정세를 능숙하게 타개해 나가신 **김일성**주석의 위인상을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창작단에서는 **김정일**령도자의 혁명활동을 주제로 한 총서 ≪불멸의 향도≫의 첫 작품으로 장편소설 ≪아침해≫(1988년)를 내놓았다. 그후 ≪예지≫, ≪푸른 하늘≫, ≪평양은 선언한다≫ 등 여러 편의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2002/05/22 조선중앙통신

조선 군대 위력의 원천은 관병일치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는 참다운 상하관계, 관병관계는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게 한 중요한 비결이다.

관병일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군대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하여 뗄래야 뗄수 없는 운명공동체, 사상의지의 결정체로 굳건히 뭉쳐 있기에 우리 인민군대의 힘은 그 어떤 현대적무기도 당해 낼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고 있다.

2002/05/22 조선중앙통신

2 종합
-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은폐 위해 국민기만우롱
- 이회창 후보의 우려스러운 통일관
- 대학생들, 이회창 관훈토론회 반통일발언 규탄
- ≪친북좌익세력명단≫ 작성은 친일친미사대분자들의 망동

4 노작
-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10)

6 세기와 더불어
- 8장 6절 밀림속의 병기창(3)

8 칭송
- **김일성**동지를 노래합니다
- 동판부각상 ≪적도표시탑≫

9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청소년학생들속에 당적사상체계 확립
- 학교민청사업을 세롭게 발전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반미가요 현황과 그 주목되는 점

12 투쟁보도
- ≪민간방위조직≫설치의향,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야망
- 오만한 횡포
- F15-K선정 압력 새로운 증거 제시
- 연세대 학생들 주적론 철회 기자회견
- 충청총련, 공안탄압 규탄 성명
- KAL858사건 관련 의혹의 사진
- 5인5색,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15 운동강좌
-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3)

이회창, 아들병역기피 은폐 위해 국민 기만우롱

이회창의 장남은 병역면제 논란끝에 지난 97년 9월 소록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회창은 지난 97년 대선직전 당시 장남 이정연의 불법병역면제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적관련서류를 파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회 각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1일 전 병무청 고위간부를 지낸 김모씨는 지난 1월 검찰에 병역비리수사팀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 97년 대선직전에 이회창이 장남 이정연의 불법병역면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군 춘천병원에 남아 있던 병역판정 부표와 병무청 병적기록부 원본을 파괴하거나 변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당시 자신이 이회창측과 여러 차례에 걸쳐 시내 호텔등에서 대여섯차례 병역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이회창의 국민기만의 정체를 백일하에 여실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지금 각계에서는 이회창의 이같은 추악한 국민기만우롱행위에 치솟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 이미 논란이 일던 아들 병역기피문제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청렴결백을 주장해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청렴결백의 막뒤에 숨겨진 이회창의 비열한 음모가 드러났으니 어찌 우리 국민들이 분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회창의 병역기피문제는 큰 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병역의 무면제시킨 것은 물론 아들, 사위, 친척 ** 중의 7명을 병역의무를 면제시키고 그중 하나인 처사촌은 2대 독자라는 거짓말로 6개월간의 방위훈련만 받게 한 것이 바로 이회창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아들과 친인척 병역기피문제를 부정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 갖은 비열한 짓을 다하면서도 청렴결백을 떠들고 있으니 이회창보다 더한 철면피한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회창의 부정비리행위는 결코 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97년 대선당시 이회창이 1157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안기부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빼돌려 부정착복하고 최규선으로부터 방미활동비로 20만달러를 받아 부정착복한 사실이라든지 일반서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호화주택을 15억원을 주고 사들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부정비리왕초로서의 이회창의 정체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도처에서 온통 부정비리의 악취만을 풍기는 이회창이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감히 대통령자리를 넘겨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회창이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청소를 하고 승용차가 아니라 버스와 열차를 타고 다니며 호텔이 아니라 여관을 이용하면서 청렴결백한채 국민을 기만하는 영상개선에 나선 것은 그의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치고 부정비리와 국민기만으로 가득찬 이회창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회창은 가련한 제 처지를 똑바로 알고 허황한 망상을 버려야하며 이번에 드러난 아들의 병적관련서류파괴진상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부정부패와 국민기만에 이골이 난 이회창이 대통령의 권좌에 오를 경우 초래될 엄중한 악결과에 대해 똑바로 명심하고 반이회창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2일

이회창 후보의 우려스러운 통일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지금도 눈에 선한 2년전 평양에서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 항이다. 언제 읽어보아도 명문(名文)일 뿐 아니라 그 의미도 매우 깊다.

이 제2 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제1 항과 함께 모두 5개항으로 되어있는 6.15 공동선언의 정수(精髓)로 통한다. 제1 항이 ≪자주≫라는 통일의 원칙을 밝혔다면, 제2 항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인정한≫ 바탕에서 통일의 방도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6.15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처음에는 ≪6.15 선언의 원칙과 정신을 살릴 것이나 2항은 그대로 갈 수 없으며, 많은 국민의 생각과 크게 다른 만큼 분명히 짚고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토론회 말미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2항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자세로 보이기도 할 것≫이라며 ≪폐기≫가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발언을 정정했다고 한다.

≪폐기≫든 ≪짚고 넘어≫가든 이회창 후보의 통일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2 항이 바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 즉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존중하자≫는 정신인데, 이를 부정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도대체 무슨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제2 항이 ≪많은 국민의 생각과 크게 다른 만큼≫이란 또 무슨 뜻인가? 6.15 공동선언은 세계가 지지하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미 이뤄진 바 있다. 자기 주장이 맞게끔 보이기 위해 가만히 있는 ≪많은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어선 안된다.

또한 이회창 후보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육로관광이 허용되고 금강산관광특구로 지정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충족되면 계속해도 된다≫고 말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에 대해서도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답방하게 되면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 6.25 전쟁과 테러문제 등에 대해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개진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갖는 ≪평화사업≫적 측면을 애써 외면하고 ≪경제사업≫만 강조하려는 것이나 ≪답방≫에 전제 아닌 전제를 다는 것들은 모두가 ≪반대를 위한 반대≫거나 ≪언어의 유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회창 후보는 ≪집권한 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을 거론하며 북한을 공격한다면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추상적인 가정이므로 답변을 안하고 싶다. 다만 한국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말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 무슨 해괴한 답변인가? 아무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명확히 대답할 말이 있고 슬쩍 회피할 말이 있다. 미국의 북폭에 대해 명확히 ≪안된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답변회피는 마치 북한공격 지지로 느껴질 정도이다.

재임중 대북정책이 스무번 이상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해서 비판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조차 1994년 미국의 대북침공 일촉즉발의 상태에서,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전화담판을 통해 이를 극구 말렸다고 무용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다. ≪전쟁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통일관과 대북관에 있어 ≪흡수통일론≫과 ≪대북적대시 정책≫도 모자라 전쟁관에 있어 ≪호전성≫(好戰性)까지 띠어선 안된다. 또한 민족적인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회창 후보의 통일 및 북한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이 정략적인 발언이길 바라고 싶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그의 관점들이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끔찍하기 때문이다.

2002/05/23 통일뉴스

대학생들, 이회창 관훈토론회 반통일 발언 규탄

반이회창 투쟁본부 성명 발표

≪6·15 공동선언 훼손하고, 반통일 대북정책 주장하는 이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

≪통일대통령 뽑는 대선에 남북대결론자 웬말이냐, 자질의심 이후보는 정계를 은퇴하라!≫

1.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22일 관훈토론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며,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금 대결과 반목의 길로 되돌리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보수정치, 6·15방해 이회창 반대 대학생 투쟁본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이후보가 이 발언을 철회하고 전국민에게 사과하며, 책임지고 후보사퇴, 정계은퇴할 것을 촉구한다.

2. 이후보는 관훈토론회 초청 대선주자토론회에 참석하여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 중 평화체제 변화에 대한 언급과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을 갖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부분은 국민이 느끼는 것과 다른 방향인 만큼 분명히 짚고 정확히 해야한다≫, ≪공동선언 2항은 아직 한번도 남북정상 간에 지적이 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이 조항을 폐기 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 했다가 국민의 통일열망을 의식한 듯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바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자세로 보이는 만큼 문제점을 짚고 넘어간다는 취지로 다시 말한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이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통일≫에 대한 관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후보는 남북관계 진전에 획기적인 전환을 불러일으킨 2000년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당시부터 ≪시기상조론≫, ≪안보위협론≫을 펼치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반통일적 발언을 연발한 장본인이다. 그가 다시 전례없이 심각한 반통일 망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한총련 대학생들은 이후보 반대의 입장을 다시금 확고히 천명하고 그 발언의 허무맹랑함과 위험성을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의 구체적 방향을 함께 마련한 역사적 조항이다.

전 국민이 인정하는 바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이전의 대결과 반목에서 단합과 통일로 전환시킨 기념비적인 선언이다. 또한, 지난 72년 남북이 천명한 조국통일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단을 지양하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방도들을 제시한 통일실현의 귀중한 재부이다.

특히, 2항은 남북통일의 방향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남북이 전쟁에 의하지 않고, 이념과 체제, 정견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단합하여 통일하기 위한 방도는 현실적으로 연합, 연방제 통일방안일 수밖에 없다. 흡수통일과 같이 하나의 이념과 체제를 강변한다면, 어느 한 쪽의 반발이 불러올뿐더러 하나가 하나를 제압하여 통일하는 전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북의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는 이러한 취지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같은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평화통일의 구체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후보가 2항을 훼손하려는 발언을 한 것은 남북관계의 큰 진전을 부정하고, 다시금 분단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통일외교안보분과위에서 얼마전 정리한 ≪대북정책≫과 연관지어 그 심각성은 지대하다.

이후보,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은 5·6공 정권 등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에 비해 대결주의적인 냉전적 색채가 분명하고, 흡수통일론의 성격까지 짙어 내외의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이 대북정책은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인식한다면서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아 전문가들조차도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한반도에 첨예한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이는 ≪선평화·후교류협력≫의 원칙을 세우고 있어서, 지금까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정책을 거꾸로 뒤집고 있어서, 통일부 관계자가 ≪실질적 교류협력 중단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을 할 정도로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대북정책이 ≪한반도 북부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흡수통일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계획≫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후보와 한나라당은 이같은 대북정책은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통일방안 제시는 유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이후보의 발언은 한마디로,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온 6·15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동시에, 내적으로 흡수통일, 남북대결의 반통일적 자기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금, 흡수통일 주장은 결국 평화적 방법이 아닌 전쟁과 무력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간의 대결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다.

3. 이후보에게 묻는다.

지난 2000년 전민족과 전세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후보와 한나라당의 반통일적 대북기본노선은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강경파와 국내 일부 수구세력 이외에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는가? 이는 자신의 반통일성을 다수 국민의 이름을 도용하여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이후보는 당장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과 전세계 인류에게 사죄하라.

이후보는 스스로도 인정했던 것처럼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 다시한번 반성하고 즉각, 책임을 지고 후보직 사퇴, 정계은퇴하라. 대학생 유권자들은 이후보의 정치활동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이후보를 심판할 수 있음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2002년 5월 23일
보수정치, 6·15 방해 이회창 반대
대학생 투쟁본부

≪친북좌익세력명단≫작성은 친일, 친미사대분자들의 망동

22일부 ≪민주조선≫은 남조선의 반공화국대결광신자들이 ≪친북좌익세력명단 공개추진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하여 앞으로 그 ≪명단≫을 작성공개할것이라고 한 행위를 리성도 량심도 없는 간악하고 파렴치한 친일, 친미사대분자들의 망동으로 락인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그들이 작성발표하려는 ≪친북좌익세력≫은 지난 일제통치시기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 먹은 친일역적들의 죄행을 폭로하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그 누구보다 앞장 서 활동하는 애국적인사들이라는것을 상기시켰다.

그들을 비방중상하는것은 결국 미제를 등에 업고 우리와의 대결을 심화시키며 나라의 분렬을 지속시켜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 막으려는 흉심의 발로이라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지난 날 일제에게 빌붙어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누리며 온갖 못된 역적질을 일 삼아 왔으며 오늘은 미제의 개노릇을 하면서 상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적극 협력가담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에 훼방을 놀고 있는 친일친미사대매국노들은 처단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10)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4.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자(3)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좋게 지낼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세아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아세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외래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여러 나라들과의 래왕과 접촉을 강화하고 경제문화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5. 당사업을 강화하자

동지들!

총결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자랑찬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 왔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능숙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인 진전속에서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가지 완성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가 튼튼히 다져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총결기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전면적으로, 더욱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 규률이 확립되였습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우리 당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하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철석같이 뭉쳐 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주체사상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발붙일 틈이 없으며 그 어떤 힘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절대로 허물수 없습니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는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수립되었습니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당의 조직적 의사이며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령도 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였습니다. 우리 당 안에는 모든 당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모든 당원들이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 있습니다. 우리 당의 규률은 당원들의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에 기초하고 있는 자각적인 규률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 규률은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 규률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가 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고 민주주의를 비롯한 각급 당위원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과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들을 배합하여 잘 꾸렸으며 당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제기된 문제를 당원들의 의사에 맞게 민주주의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우의 당조직이 아래 당조직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움으로써 우리 당조직들이 아래 당조직들의 활동정형과 사업실태를 늘 환히 꿰들고 제때에 필요한 지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부지도체계에 따라 각급 당기관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아래 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 준 결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진행한 지방 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지도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조직들이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당적 지도를 원만히 하고 있으며 해당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주관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군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군중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중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당조직이 움직이고 있으며 당조직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당조직들을 통하여 당과 잇닿아 있으며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당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기본고리입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데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세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새로운 당생활체계는 항일유격대식 당생활기풍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서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당원들 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섰으며 당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커다란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있으며 당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 당생활체계가 철저히 서고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확립됨으로써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화되였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그들의 선봉적 역할이 높아졌습니다. 높은 당적 자각과 왕성한 기백을 가지고 군중의 앞장에서서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 당원들의 고상한 풍모입니다.

총결기간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없어지고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당사상사업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혁명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기동성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상사업에서 격식이나 차리고 겉치레만 하던 낡은 틀이 없어졌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상교양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당조직들을 당 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한 대중정치사업, 다양하고 힘있는 선동사업은 커다란 생활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총결기간 온 나라에 혁명적 학습기풍이 수립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 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생활상 제일차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들이 학습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당 안에 제정된 학습규률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높은 당적 자각을 가지고 학습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상사업에서 출판보도물들의 역할이 강화되였습니다. 출판보도사업에서 주체가 튼튼히 섰으며, 출판보도물의 사상, 리론 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당사상사업의 예리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당사상사업에서의 성과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가 새롭게 변모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있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사회에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 열정이 차넘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는 것은 우리 당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온 결과입니다.

총결기간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에서는 재래식 사업방법이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저애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관료배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당사업 전반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워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습니다. 전당에 혁명적 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는 것이 오늘 우리 당의 면모이며 사업기풍입니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는 참으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당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당에 주체사상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고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우리 당의 주체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 수 있으며 당 앞에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구현되며 혁명과 건설도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서만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고 끝까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어야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할 수 있으며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 먼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간부는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간부대렬을 잘 꾸리야 당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할 수 있습니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간부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높은 사상적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간부는 또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가져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정치 실무적 능력이 있으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좋은 일군들을 선발하여 간부대렬을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간부대렬의 질적 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은 간부사업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간부대렬을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여 꾸리며 간부대렬 구성에서 로동계급 출신의 비중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지난 기간 당에 충실하여 온 로간부들이 계속 일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한편 주체교육을 받고 새로 자라난 젊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래동안 로동 속에서 단련된 로동자들, 특히 기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핵심로동자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6. 밀림속의 병기창(3)

그러므로 우리는 항일전쟁을 개시하는 첫날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중을 꾸준히 교양하였다. 남들이 도와주면 좋고 설사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나라를 찾아야 하며 또 찾을 수 있다는 사상, 위에서 해결해주면 좋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만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상은 대중을 쉽게 공감시켰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지 않거나 과소평가하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자고 호소할 때 쌍수를 들어 환영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 크지 않은 무장문제가 제기되자 머리를 기웃거리며 난색을 짓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 창건을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군사훈련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날 이영배와 방인현이 무기청소를 하다가 격침을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 한 자루 한 자루를 피와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실정에서 이것은 그대로 스치고 지나갈 수 없는 비상사고였다.

나는 고장난 격침을 이모저모 살펴보다가 이영배와 방인현에게 말했다.

≪동무들에게 하루 동안의 시간을 주겠으니 내일 이맘때까지 격침을 고쳐오시오.≫

두사람 다 눈이 휘둥그래졌다. 내가 감히 그런 엄청난 요구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아니 현대적 군수공장에서 나오는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혹시 생명을 내대는 모험이나 싸움같은 것이라면 몰라도 이거야 기술이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 것이 혁명이라면야 무엇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혁명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겠소. 보통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업을 해제끼는 여기에 혁명의 참뜻이 있고 혁명가의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지만 강쇠로 만든 격침이 부러졌는데…. 이거야 어디 이론으로만 되는 일입니까?≫

방인현은 암담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격발기를 굽어보았다. 그 순간까지만 하여도 그는 격침을 원상복구하라는 나의 요구를 허황하고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때에 지휘관이 자기의 지시를 철회한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나는 내 지시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삼 냉정하게 요구하였다.

≪고칠 수 없다면 앞으로 유격대원이 될 자격이 없다. 조그만 격침 하나 고치지 못하는 능력으로 복잡한 사회개조는 어떻게 하겠는가. 동무들이 정녕 그 격침을 고칠 의향이 없다면 내일부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렇게 엄포를 놓자 두사람은 화다닥 놀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격침을 꼭 고쳐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는 방법을 대달라고 하였다.

≪나는 방법을 모른다. 방법은 동무들끼리 찾아보라.≫

이영배는 방인현은 격발기를 들고 울상이 되어 훈련장을 떠났다.

다음날 그들은 격침을 고쳐가지고 희색이 만면해서 훈련장에 나타났다. 완전무결한 원상회복은 아니였으나 격침은 손색없이 작용을 하였다.

동무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수리를 명령한 내 자신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술이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며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던 저 동무들이 무슨 갑작수로 저렇게 쉽사리 격침을 고쳐가지고 왔을까?

≪처음엔 철사를 얻어 줄칼로 새 격침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강쇠가 있어야지오. 그래서 격침을 불에 달궈 두드려 늘궜습니다. 돌에 갈아 형태까지는 그럭저럭 잡았는데 떡쇠를 강쇠로 만들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소사하에 있는 오랜 대장쟁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떡쇠를 강쇠로 만들자면 기름에 담그라는 겁니다. 그말대로 했더니 이런 강쇠가 됐습니다.≫

방인현은 덤벼치면서 수리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들의 수리 경험은 동무들을 크게 분발시켰다. 자기 힘을 믿고 그 힘을 잘 발동하면 누구든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모두가 흥분된 심정으로 받아안았다.

수리한 격침을 들고 훈련장으로 뛰어올 때 이영배와 방인현의 얼굴에 활짝 피어났던 그 보름달 같은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미소는 분명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다함없는 긍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냈을 때에 맛보게되는 쾌감과 희열보다 더 격렬한 환희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격침 한개란 사실 보잘 것 없는 것이다. 그것을 수리하는 시간이면 새보총 10자루도 능히 노획해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격침 한개를 수리했을 때에 얻게 되는 교훈은 수소폭탄 한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확산시킨다.

맑스와 엥겔스는 인류발전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정당한 규정이다.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인 동시에 자기 발전의 역사, 자기 창조의 역사, 자기 완성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인류가 자기 자체에서 사람에게 고유한 힘과 재능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연마해온 창조의 역사이며 동시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인류역사는 또한 자기를 정치사상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부단히 세련시켜온 혁신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인류는 이런 창조와 혁신의 힘으로 오늘날의 로케트시대, 컴퓨터시대, 유전자공학의 시대, 녹색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자력갱생은 역사발전을 촉진시켜온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일 자기 힘을 계발시키지 않고 천지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그 어떤 신이나 하느님의 은총만을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왕청유격구의 병기창

우리가 동만 각지에서 병기창들을 활발하게 운영해가지고 있을 때 사충항은 동녕현성에 왕덕림의 구국군이 경영하던 병기공장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슬쩍 귀뜀해주었다. 이 통보를 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동녕현성에 더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 사충항의 말에 의하면 이 병기공장은 1932년 봄에 한두 대의 선반과 주물차, 재봉기를 가진 군기수리소로 발족하였다고 한다. 1932년 하반기부터 군기수리소는 수류탄, 박격포탄, 25발짜리 기관단총, 일명 돼지포라고도 불리는 포를 생산하는 본격적인 병기공장으로 발전하여 그 관하에 직원만해도 200여 명이나 두었다. 그러는 사이에 공작기계를 비롯한 생산수단들과 설비도 보강되엇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무기는 주로왕청현 대전자와 녕안지방의 구국군 부대들에 공급되었다.

일본군의 강점과 함께 공장은 해산되었다. 그러나 설비와 기계수단은 종전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만일 우리가 1933년 가을에 동녕현성을 타고 앉는데 완전히 성공하였더라면 이 병기공장은 불피코 우리의 무기공장으로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보다 더 현대적인 경무기와 중무기로 자신들을 더욱 훌륭하게 무장하였을 것이다.

1930년대 전반기 유격근거지들에서 창조된 병기분야의 경험은 1930년대 후반기 백두산근거지에 건설되었던 병기창들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계승발전되었다.

우리는 유격근거지마다에 재봉대를 꾸려 군복도 자체

군복을 짓던 재봉기

로 해입었다. 천도 자체 해결이요, 염색도 자체 해결이요, 제작도 자체 해결이었다. 가둑나무와 가래나무, 황경피나무 껍질을 큰 가마에 넣고 우린 다음 그 물에 천을 넣으면 보위색으로 착색되었다. 나무의 종류별 배합비율에 따라 천의 색깔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였다.

왕청재봉대의 초기 성원은 김연화와 함께 한때 6호촌의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복무한 전문진이었다. 그밖에 남자재단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후 소왕청재봉대에는 이일파, 김명숙, 김순희 등이 보충되었다. 일손이 달릴 때에는 임시노력도 채용하였다.

소왕청 시절의 나의 군복은 전문진이 지어준 것이였다.

내가 안도에서 왕청으로 가자 그곳 재봉대원들은 청년장군이 왔는데 좋은 옷을 지어드려야겠다고 하면서 코트와 군복을 일식으로 만들어주었다. 천은 손으로 물을 들인 수수한 광목이었지만 그 한뜸 한뜸에 스며있는 정성은 참말로 지극하고 섬세한 것이었다.

소왕청재봉대는 2~3대밖에 안 되는 재봉기를 가지고 대대나 연대에 소요되는 군복을 도맡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대나 연대부의 주문에 따라 반일부대 장병들이 입을 군복까지도 일식으로 지어냈다. 일식이라고 하면 군복저고리와 바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르는 군모와 행전, 탄띠까지도 다 포함된다. 재봉대에 부과되는 작업량은 공칭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생산능력을 뛰어넘는 과부하가 생길 때마다 근면하고 충실한 재봉대원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일손을 다그쳐나갔다. 잠이 오면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노래를 불렀다. 오죽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모든 재봉대원들이 수십 가지의 혁명가요를 외우고 있었겠는가.

소왕청재봉대의 초대책임자는 김연화였다. 그 당시의 왕청사람들은 그를 활량이 또는 말광량이라고 불렀다. 그가 이따금씩 담배질을 한다고 남자번지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덜렁덜렁한 말괄량이가 뜨개질이나 바느질만은 아주 솜씨있게 하였다.

김연화가 바느질을 배운 것은 부부생활을 시작한 후부터였다. 그의 남편은 다리가 한 쪽밖에 없는 불우한 사나이었다. 승산없는 가난과의 대결에서 그가 첫째가는 호구지책으로 삼은 것은 삯바느질이었다. 김연화의 재봉솜씨는 이때부터 축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군복도 잘 만들었지만 중국옷도 맵시있게 만들었다. 김연화를 남자번지개라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가 지어준 옷을 입고서는 ≪연화누님, 절을 받아주십시오!≫하면서 재봉대가 있는 골 안을 향해 꾸벅꾸벅 절을 하곤 하였다.

우리의 재봉대원 가운데는 병기창 성원들 못지않은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이 많았다. 김명숙, 전문진, 한성희, 안순화, 최희숙, 김용금, 김수복, 최인숙, 박정숙, 조영숙, 박수환, 마인옥, 김선 등은 모두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수천 수만벌의 옷을 지어낸 간고분투의 명수들이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안순화의 최후와 간파하자 밀영에서의 여섯 재봉대원들의 영웅적 순국을 사실 그대로 방불하게 그려낼 언어가 나한테는 너무도 모자란다.

우리는 유격구마다 병원을 차려놓고 부상자와 환자들도 자체로 치료하였다. 치료에 사용한 수술칼, 핀세트 등의 의료기구들은 모두 병기창 기술자들이 자체로 만들어낸 것들이었으며 약간량의 신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약들도 의료일군들이 군중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체로 마련하고 제조한 것이었다.

의사와 간호원을 데려올 데가 없으니 그것도 자체 해결이었다. 동의사 경력을 가진 한두 명의 선각자들이 무수한 후비들을 키워냈다.

임춘추, 이봉수 등은 치료사업에서 특출한 업적을 쌓은 명의들인 동시에 후비 육성에도 무시할 수 없는 공로를 세운 권위있는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에서 삶의 노래, 소생의 노래를 부르며 뛰쳐일어나 대오로 돌아갔던가.

우리는 식량문제도 자력갱생으로 해결하였다. 인민들에게 납부량을 정해주고 그것을 모아들이는 방법으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군대와 적위대, 반일자위대, 소년선봉대, 청년의용군을 비롯한 반군사조직들 앞에 식량의 자급자족화 목표를 내세우고 유격구의 농경지들에서 자체로 곡식을 심어먹도록 강하게 요구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여 대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맹렬하게 벌이던 1930년대 후분기에는 후방부대를 파견하여 백두산 기슭에서 전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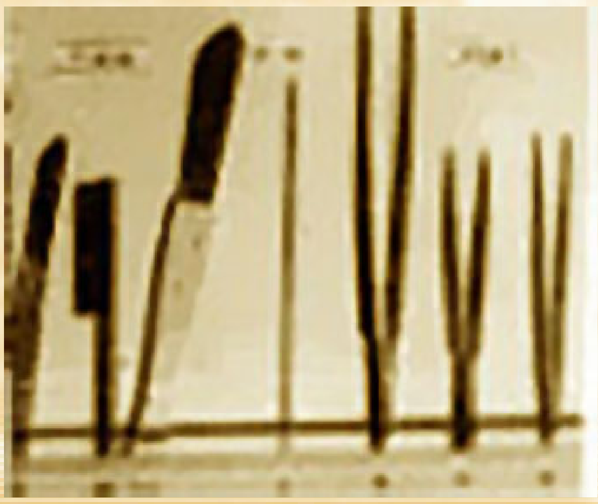
자력갱생은 이처럼 기나긴 항일전쟁의 나날에 혁명군의 존망을 좌우한 생명선으로 되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고 좌우명으로 되었다. 이 좌우명을 뼈와 살로 만든 사람은 절해고도에서 지조를 지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오를 떠나 변절투항하거나 중도반단의 길을 걸었다.

항일선열들이 백두의 설한풍 속에서 고이 안고온 자력갱생의 불씨는 해방 후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옮겨져 새조선 건설의 봉화로 타올랐고 동방 일각에서 전설의 천리마를 날린 원동력으로 되었다. 평범한 수리기지에 지나지 않았던 자그마한 공장에서 우리가 전기기관차 제작에 달라붙었을 때 한 대사는 조선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다. 우리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만들어낸 ≪붉은기≫ 1호는 그 경쾌한 기적 소리로 대사의 예언을 가볍게 짓눌러버렸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망치소리는 노동당시대의 맥박으로 되고 이 시대를 줄달음치게 하는 위력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항일전쟁의 폭풍속에서 태어난 자력갱생의 넋은 오늘날 **김정일**조직비서가 제시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속에서 힘차게 살아 고동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행진곡≫을 부리며 풍랑 사나운 20세기 마지막 연대의 영마루로 치달아오르고 있다.

유격구에서 자체로 만든 의료기



유격구에서 자체로 만든 약품

김일성동지를 노래합니다

-러시아작가 알렉산드르 브레즈네브-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려주며
화창한 봄이 왔어라
조선에서만 한껏 부풀어 오른
아름다운 4월의 봄이 왔어라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
90돌 되는 올해
인류의 태양으로 솟아올라
어느덧 90번째 맞이하노라

한평생 민중을 위해 바쳐오신
그대 한생의 하루하루는
반짝이는 금강석처럼 빛을 뿌리고
승리의 열병식처럼 위훈으로 빛나리라

돌이켜보면 그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시선이
저멀리 세기의 언덕에 가닿았고
민중을 부르는 그대의 목소리
그 언덕너머에까지 울리었나니

그대의 한평생은 세기를 넘어 펼쳐지는
희망찬 생활을 안아왔어라
하여 그대와 함께 사람들
희망찬 새날을 맞고
그대와 함께 사람들
화목한 가정에 모여앉고
그대와 함께 귀여운 아기를 두손에 안아올리며
희망의 나래 창공높이 펼치었어라

4월의 봄이 되오니 언제나 가슴에 안고
그대의 넋으로 사는 민중
그대의 품에 안겨 자라나 그대의 손길따라
부강번영의 한길로 가노라

지난날 저주로운 압박의 쇠사슬 끊어버리고
낙후와 빈궁의 흔적 영영 털어버린 민중
주체의 사회주의로 매진하여라

아 - 조선에 행운을 안아오신
자애로운 어버이스승이시여
그대는 진정 조선의 심장
그대는 진정 민중의 기쁨
그대는 진정 꺼질줄 모르는 조선의 힘
그대는 이 행성의 영광

그대가 걸으신 머나먼 길
자신의 모든 것 다바치신 한평생
그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었어라
조선의 위대한 아들 **김정일**

그분은 민중의 행복의 창조자
사회주의운명의 수호자
동방조선에서 솟은 태양
그분께서는 강철의 심장을 지닌
조선민중을 승리에로 승리에로 이끄신다
민중들은 그대에게 감사의 노래 드린다
주체의 송가를 삼가 드린다

동판부각상 ≪적도표식탑≫

동판부각상 ≪적도표식탑≫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에콰도르교수협회대표단 단장인 밀톤 부르바노가 드린 선물이다.

이 선물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부르바노의 열렬한 흠모심이 반영되어 있다.

예술적으로 뿐 아니라 과학적이며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동판부각상 ≪적도표식탑≫은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 있다.

이 선물은 높이 40㎝, 너비 29㎝의 동판에 ≪적도표식탑≫이 부각되어 있다.

동판부각상 ≪적도표식탑≫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

1984년 여름 어느 날 아침

에콰도르교수협회의 한 성원인 밀톤 부르바노는 가족과 함께 수도 끼또로부터 5㎞떨어져있는 ≪적도표식탑≫을 향해 차를 몰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창으로는 야자수의 넓은 잎 사이로 높이가 30m인 ≪적도표식탑≫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가 ≪적도표식탑≫앞마당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온 과학자들과 관광객들로 붐비었다.

그 정교한 건축술에 감탄을 표시하는 아프리카사람들, 지구의 두 반구를 가로타고 서보았다는 것을 기념하려고 적도선을 양발로 밟고 서서 사진을 찍는 유럽과 아시아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르바노의 생각은 깊어졌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여러 번 다녀간 곳이지만 올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새로웠다.

관람자들의 물결 속에 끼어 탑 위에 오른 부르바노는 5t의 무게를 가진 대형지구의 앞에 멈춰 섰다.

지구의 중심에는 한 갈래의 흰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은 탑 밑으로 내려와 돌계단을 거쳐 적도 선과 곧게 이어져 있었다.

바로 이 ≪적도표식탑≫은 지구를 남북 두 반구로 갈라놓는 적도 선에 세워졌다.

(적도 선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하기까지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르바노의 눈앞에는 흘러간 수세기의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안겨왔다.

오래 전부터 라틴미주의 인디안들은 태양을 신으로 믿고 살아왔다.

자연에 대한 오랫동안의 관찰을 통해 인디안들은 태양이 해마다 고정된 시기에 에콰도르북부의 한 지역 상공을 지나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디안들은 이 지역을 표식해 놓고 ≪태양의 길≫이라고 불렀다.

그후 스페인과 프랑스의 천문학자들이 이곳을 측량하여 인디안들이 표식한 ≪태양의 길≫이 오늘의 적도 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에콰도르정부는 1936년 첫 ≪적도표식탑≫을 건설하였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978년 에콰도르정부는 본래의 적도표식탑에서 5㎞떨어진 곳에 더 높고 웅장한 오늘의 새 ≪적도표식탑≫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4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탑의 네 면에는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스페인어자모 ≪이≫, ≪오≫, ≪에스≫, ≪엔≫의 네 글자가 새겨져있다.

부르바노의 가슴은 흥분으로 높뛰었다.

(그렇지. 인디안들은 적도를 두고 ≪태양의 길≫이라고 불렀다.

세상만물은 오직 태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기때문이였다.

오늘 자주의 물결이 도도히 굽이치는 자주시대 인민들은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인간의 참된 삶을 빛내어 주는 향도의 태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중심의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어 인간의 존엄을 빛내어주고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그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아, 그분들은 바로 인류가 그토록 높이 칭송하는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이시다.

김정일각하는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 나가시는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시며 만민이 높이 칭송하는 향도의 태양이시다!

그럴진대 내 라틴미주사람들이 예로부터 태양을 칭송하여온 그 마음을 안고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각하께 ≪적도표식탑≫을 만들어 선물로 삼가 드리리라)

그때로부터 여러 달이 지나 동판부각상 ≪적도표식탑≫이 완성되었다.

1985년 9월 2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부르바노는 한 일꾼에게 선물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선물은 소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를 인류의 위대한 태양, 자주시대의 향도성으로 높이 칭송하는 에콰도르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동판부각상 ≪적도표식탑≫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에콰도르와 라틴미주 인민들의 열렬한 존경심과 흠모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21회
학사 김창호 선생 - 주체91, 5월 21일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당적사상체계 확립을 위해 사업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당적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당적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7, 1958년 3월에 있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신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적사상체계 확립에 관한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 당적사상체계의 혁명적 본질과 당적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과업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당적사상체계 확립에 사상을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적사상체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막연하게 노동계급의 사상체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적사상체계의 혁명적 본질에 대해서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적 사상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밝혀주신 바와 같이 당적사상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입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당적사상체계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의미한다고 그 본질을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당적사상체계의 본질에 관한 사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정통하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밝히실 수 있는 위대한 **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적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과업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그 과업은 청소년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했던 항일혁명성원들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청소년 학생들의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적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 당적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본질과 과업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셨습니다. 우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종파주의의 여독을 청산하는데 힘을 넣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이 종파의 반동적 본질과 우리나라에서 종파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근원, 종파분자들의 책동의 해독성을 알고 종파주의의 여독을 청산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7, 1958년 4월 평양 제1중학교 고급반 1학년 민청초급일군들에게 종파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과 혁명은 안중에 없이 자기 개인의 명예와 사리사욕만을 위한 당과 혁명을 반대하여 나선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집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이 종파분자들과 조직적으로 완전히 결별한 우리당의 조치의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45, 1956년 8월 전원회의와 주체47, 1958년 3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계기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적발 폭로하고 그들과 조직적으로 결별하였습니다. 이것은 천만번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민청초급일군들이 종파에 대한 우리당의 원칙적이고 혁명적인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 속에서 해설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7, 1958년 4월에 하신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에서 종파여독의 표현형태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종파주의 여독은 당의 사상과 맞지 않는 잡도리를 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하시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왜곡되게 인식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교 민청총회와 초급단체총회에서 학생들 속에서 종파여독을 뿌리 빼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7, 1958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7, 1958년 3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당적사상체계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의미한다고 그 본질을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당적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의 다른 하나로써 그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문헌을 접수토의하는 학교 민청총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총회를 결속하시면서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참다운 투사가 되자.≫라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결론에서 종파분자들의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뿌리뽑는 투쟁도 반종파투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회의 계기로 해서 학생들 속에서는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모든 것을 당 정책적으로 재어보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기풍이 서가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후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당적 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 주체47, 1958년 9월 학교 민청총회를 여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총회에서 ≪민청원들 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결론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년들 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내놓으시고 그것이 현시기 당의 요구이고 민청원들에 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임무라고 하셨습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는 종파주의의 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당적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의 다른 하나로써 그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당의 혁명전통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영도업적이 그대로 체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실을 정중히 꾸리는데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7, 1958년 9월 학교에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실을 꾸릴 것을 발기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역사를 따라 배우려면 조선노동당 연구실부터 꾸려한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실을 꾸리는 사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며 학교 민청위원회와 초급단체총회, 소년단 분단총회등을 열러 학생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8, 1959년 2월에 진행된 학교 민청위원회에서 연구실을 꾸리는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7돐 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해서와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이 사업에 떨쳐나설 때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연구실에 비치할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광범히 수집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편집, 정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사진들과 자료들을 보내주시고 연구실을 꾸리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몸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연구실을 꾸리는 사업도 진행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주체48, 1959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남산고급중학교에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실이 개관되었습니다. 평양남산고급중학교에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실이 정중히 꾸려지게 된 것은 이 시기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혁명전통 교양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따라 배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7, 1958년 9월과 주체48, 1959년 4월 학생초급일군들과 청년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따라 배우는 것은 혁명전통학습에서 기본 핵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를 깊이있게 연구 학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청소년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출판물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셨는데 특히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투사들의 회상기를 널리 학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예술소조활동과 예술작품 감상활동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혁명가요합창경연회를 조직하셔서 혁명가요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시고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 감상모임도 자주 조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혁명전통교양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들은 그 후 널리 일반화되어가지고 전당의 혁명전통교양의 전통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이끄셨는데 그이께서는 ≪청소년들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전통교양을 학습과 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었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데서 앞장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 시기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는 당적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22회
학사 김창호 선생 - 주체91, 5월 22일

학교민청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벌이신 활동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학교민청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벌이신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청이라는 것은 조선민주청년동맹의 약칭을 말합니다. 오늘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전신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5(1956) 12월에 조선민주청년동맹에 가맹하시여 민청사업을 지도하셨고 주체46(1957)년 9월부터는 학교민청 부위원장으로 선거되셨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교원이였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 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먼저 학교민청단체의 임무와 그 관철을 위한 과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6(1957) 2월 평양 제1중학교 민청위원회에서 하신 연설 ≪학교민청단체의 임무에 대하여≫에서 학교민청단체의 임무를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모든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지식있고 능력있는 믿음직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학교민청위원회의 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명시하신 학교민청단체의 임무는 우선 모든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은 혁명의 교대자들이며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가 키우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분에 기어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청소년들 속에 반동사상을 퍼트리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했습니다. 이런 실정들은 청소년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당을 견결히 옹호 보위하는 충실한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것을 학교민청단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학교민청단체의 임무는 또한 청소년들을 지식있고 능력있는 믿음직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당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해야할 무겁고도 긴절한 과업이 나섰습니다. 그런것으로 해서 사회주의 건설장 어디에서나 요구되는 것은 지식있고 능력있는 사회주의 건설자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 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임무에 맞게 학생청년들을 사회주의 위업수행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식있는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을 학교민청단체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제기하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위원회의 임무를 관철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이께서 제기해주신 과업은 우선 민청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해서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 것입니다. 과업은 또한 민청원들이 학습을 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청원들의 동맹생활에 대한 지도를 잘하며 소년단 사업을 바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학교민청위원회의 임무와 과업을 밝혀주심으로 해서 학교민청사업을 개선 강화하고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학교민청 사업을 새롭게 발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청년학생들 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청은 사상교양 단체인 것만큼 사상사업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하며 교양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모든 청소년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으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청조직들이 민청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 정책,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 정책,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 복종하시도록 하시었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직간선전, 견학, 답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으로 사상교양사업을 벌리도록 하시었습니다.

실례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46(1957) 10월과 주체47(1958) 4월 리수복 영웅의 고향마을에 대한 견학을 조직하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리수복 영웅은 조국해방 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불의의 진격로를 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둘도 없는 목숨

모든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지식있고 능력있는 믿음직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학교민청위원회의 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을 바쳐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전투승리를 보장한 영웅전사입니다. 그이께서는 견학을 통해 민청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리수복 영웅의 충실성과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의 정신을 배우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에 신었던 짚신과 꿰진 옷을 가지고 계급교양도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긍정교양의 방법으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주체47(1958)년 말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부정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부터 긍정을 찾아 모범을 소개하는 긍정교양의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이의 지도로 해서 민청단체들은 청소년 학생들의 교양에서 긍정교양을 기본 교양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선 학교민청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으로 민청조직이 민청원들의 동맹생활에 대한 지도를 잘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우선 학교민청단체들이 동맹생활을 학습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민청단체들은 학생들이 학과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런 실태를 포착하시고 민청원들이 학습을 잘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민청단체들의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맹생활을 학습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민청단체들이 민청원들 속에서 옳은 학습관점을 가지고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는데 큰 주목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잘 조직하고 이끌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6(1957) 3월에 학과경연대회를 조직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쟁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주체46(1957) 5월에는 스무리 밤과 같은 과목별 토론회와 독서발표회 같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셔서 탐구심이 강한 청소년 학생들이 여기에 적극 참가해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민청조직들이 학생들 속에서 자각적인 동맹조직생활 기풍을 세우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민청조직들이 민청원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동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셨고 조직의 분공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는 민청조직들이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조직하는 문제, 학교민청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민청대열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민청조직 앞에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 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으로 민청이 소년단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주셨습니다.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꽃봉오리이고 민청의 교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청은 소년단 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소년단에 대한 지도를 잘해서 모든 소년단원들을 혁명과 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시 소년단 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년단 사업에 대한 지도역량이 약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분단지도원들은 교원들이었는데 그들은 수업을 끝내고 다음날 교수 준비와 실험실습 준비, 개별학습지도, 가정방문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소년단원들과 사업할 시간들이 모자랐습니다. 또, 소년단 열성자들은 소년단 조직을 자립적으로 움직여 나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이로부터 소년단 사업을 민청이 책임지고 지도하는 보조분단 지도원제를 내오시고 우월성을 발휘해 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6(1957) 2월 겨울방학 때에 소년단 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조분단 지도원제입니다. 그이께서는 학교민청위원회에서 방학기간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소년단 지도를 맡아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보조군단 지도원제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보조분단 지도원제는 학교민청이 광범한 민청원들을 망라해서 소년단 사업에 대한 지도방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과외교양 지도체계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보조분단 지도원제를 내오시고 그것이 실지 우월성을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보조분단 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주 보조분단 지도원들을 찾으셔서 분단사업 계획서를 세우는 일로부터 소년단원들과 담화하는 방법, 소년단회의를 지도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소년단 사업지도에 대한 실무를 구체적으로 배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조분단 지도원들의 정치실무적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도 조직하시고 우수한 경험을 따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후 경애하는 장군님 주체48(1959) 2월 보조분단 지도원제를 재정비하고 더욱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지도하신 보조분단 지도원제는 소년단원들 뿐만 아니라 민청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고 소년단 조직들을 생기발랄한 산조직으로 꾸리는데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서 학교민청사업은 지난날의 고질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현실과 청소년 학생들의 지향과 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소년 시기에 진행하신 창작활동이라는 제목의 사료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미가요 현황과 그 주목되는 점

이 시간에는 ≪반미가요 현황과 그 주목되는 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학생들과 각계 민중속에서는 통일기운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평양가요열풍과 반미가요선풍이 급격히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속에 일고 있는 반미가요선풍에 관해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2돌이 되어오는 지금 시국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우리 민중 모두의 의사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오늘 이 땅에 평양열풍이 세차게 일고 있고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조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반미반부시투쟁이 더욱 고양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촌에서는 물론 대학가와 공단, 농어촌, 그리고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등 경향 각지에서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반전반미반부시투쟁이 전례없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철수와 ≪F-15K≫기 구매반대, 미국상품불매, 반미사이버시위 등 반미반부시투쟁이 활발히 벌이지고 있고 여기에 이를 반영해서 반미가요선풍까지 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오늘 이 땅에서 날로 고양되는 반미운동은 대중의식화에 큰 작용을 하는 언론계는 물론 가요계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반미운동의 추향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에 관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김현규 : 정말 매우 주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여년전 5.18광주항쟁(이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래 오늘처럼 반미기운이 높은 때는 없었고 또 반미가요가 성행된 때는 일찌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6일자 ≪대한매일≫이 전한 보도만 봐도 대학가와 노동계의 반미가요가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면서 ≪전대협진군가≫와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비롯한 대중가요를 창작해 우리 민중속에 널리 알려진 윤민식씨가 운영하는 ≪노래와 생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과자를 먹다가 목에 걸려 졸도한 부시를 욕하는 노래 ≪기특한 과자≫를 전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과자야 과자야 기특한 과자야
부시를 쓰러뜨린 힘 센 과자야
세상사람들 억울한 마음 달래주려고
네 몸을 던져 장렬히 산화했구나

부시야 부시야 쌈쟁이 부시야
과자의 테러는 배후가 어디냐
과자를 만든 나라는 이제 끝장났구나
…

사회자 : ≪동아일보≫ 2월 6일자도 이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는 마음을 담아 그런지 대학가 등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전했잖아요. 그리고 부시를 크게 조소한 ≪기특한 과자≫를 지은 윤민석씨가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을 반영한 가요 ≪더러운 미국≫도 창작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이 가요가 창작되게 된 동기랄까, 그걸 보면 지난 2월 겨울철 올림픽 ****속도빙상경기 , 쇼트랙경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속도빙상경기에서 김동성선수가 미국의 횡포에 의해 미국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된거죠. 그때 언론계는 이 사건을 민

족의 자존심을 훼손당한 대사건, 9.11테러를 능가하는 사건이라면서 극도의 민족적 수치와 모멸***고 각계 민중은 금메달찾기운동본부 등을 조직하고 미국의 전횡에 항의하고 ****미국상품불매운동을 비롯한 반미운동을 벌였는데요. 여기서도 가사의 ****

…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뻔뻔한 나라 더러운 미국
북한엔 전쟁 협박 남한엔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더러운 미국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란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건가
이제는 외치리라 양키 물러가라

미국놈들 통일되면 두고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 한국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하리라
당당한 나라 통일 한국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더러운 미국
노근리 학살을 똑똑히 기억하라
살인자 나라 더러운 미국

이 가요에 대해서는 ≪민족21≫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대중속에서 확산되는 반미가요는 이것만이 아니라고 봐요. 전국연합홈페이지 **(3월 25일)에는 ≪종이비행기≫라든가 ≪또라이 부시≫ 등도 **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죠. 최근 ≪기특한 과자≫를 비롯한 전쟁광부시를 풍자야유한 노래가 (수많이) 발표되어서 대학가와 노동계들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강매를 조소하는 반미가요 ≪종이비행기≫가 연이어 창작됐는데요, 이 가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기를 사라한다 미국 놈들이
F-15 사 가지고 폼을 재란다
너같으면 사고 싶냐 고철 덩어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미국제품 불매운동 소용없다고
이리저리 초를 치고 김을 빼어도
아는 사람 다 안단다 미국 놈들아
너희들의 시커먼 심보

일본놈의 앞잡이들 살아 남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말아 먹더니
이제 다시 미국에게 빌붙는구나
그놈 피가 어디 가겠냐

조대령을 석방하라 매국노들아
양심선언 조대령을 당장 내놔라
정의로운 말과행동 죄가 된다면
우리모두 잡아가거라

우리에겐 필요없다 전쟁무기는
우리 민족 힘을 합쳐 통일할거다
통일하면 온갖 무기 모두 녹여서
맛 난 엿 바꿔 먹을거다(엿 먹을래?)

안사 안사 비행기 F-15 비행기
절대 안사 비행기 미제 비행기

사회자 : 그리고 윤민석씨는 연이어 반미가요 ≪또라이 부시≫도 창작했는데 지금 이 노래가 경향 각지에서 널리 불리어지고 있잖아요. ≪또라이 부시≫라는 노래제목 자체도 의미가 있다 하겠죠.
김현규 : 윤민석씨는 노래제목을 ≪또라이 부시≫라고 단 것에 대해 헛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또라이로 일러 부르는데 그런 점에서 부시에게 딱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가요는 다음과 같아요.

1. 부시야 부시야 또라이 부시야
아직도 헛소리 그침이 없구나
우리 집에 재봉틀 하나 놀고 있는데
꼬매줄까 네 놈의 입 과자도 못 먹게

2. 맥도널드 콜라는 아프간의 피눈물
버거킹 햄버거는 이라크의 주검들
니애비부터 저지른 죄가 차고 넘치니
웬만하면 이쯤에서 그침이 어떠냐

3. 부시야 부시야 드라큐라 부시야
약소국 피를 빨아 배부른 악마야
이제는 우리 형제들 피마저 먹으려 든다면
과자보다 무서운 마늘 맛 보게 해주마

지금 이 가요는 각계 민중속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친구들과 같이 부르고 싶다며 악보를 전해달라고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회자 : 이렇게 대학가와 노동계, 각계 민중속에서 확산고조되고 있는 반미가요선풍의 현황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주목되는 점이랄까 하는 문제를 좀 언급했으면 하는데요.
김현규 : 앞에서도 좀 언급됐습니다만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 말하자면 외세의 간섭이 없이 ***가사내용들에 담겨***미국에 대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나 원조자가 아니라 ≪종이비행기≫와 ≪더러운 미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침략자, 약탈자라는 것을 해학적으로***하면서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있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미가요 현황을 보면서 저는 언론계와 발맞추어 가요계에서 특색있게 반미가요로 반미반부시**동참해서 대중의 반미투쟁을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대중의 반미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 예리한 반미사안들을 가요주제로 선정한 것이라든가 예하면 ≪F-15K≫기 강매문제, 겨울철 올림픽 쇼트랙경기 금메달을 **한 문제들이 **다고 봅니다.
사회자 : 주목되는 점중의 하나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지고 ***풍자야유한 **매우 좋았다고 봐지는데요. 반미가요 제목 자체가 이를 잘 보여주었다고 봐요. ≪기특한 과자≫, ≪더러운 미국≫, ≪또라이 부시≫, ≪종이비행기≫ 얼마나 소탈하고 **살리고 있어요.
김현규 : 그렇죠. 이런 양상으로해서 노래는 각계 민중속에서 널리 **있었고 또 반미감정도 ***반미가요의 선풍이 **다고 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최근 반미가요의 현황과 그 주목되는 점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청년학생여러분은 날로 고조확산되고 있는 반미가요를 보급전파하는데서도 시대의 선각자, 반미투쟁의 선봉장으로서의 중임을 다해 나갈 걸 믿으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얘기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최근 반미가요현황과 그 주목되는 점에 대해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반미는 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됐습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2일

《민간방위조직》설치 의향, 국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야망

며칠전 일본내각관방 장관 후꾸다가 중의원 《무력공격사태》대처특별위원회에서 《민간방위조직》을 설치할데 관한 새로운 법을 정비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로동신문》 22일부는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인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인디아양지역에 파견한 일본 《자위대》함선들의 기한을 6개월 더 연장시켜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계속 벌리게 하려 하고 있는 속에서 《유사시관련법안》채택과 《민간방위조직》설치문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론의되고 있는것은 의미심장한것이라고 평하였다.

그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침략전쟁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패망후 《평화》의 탈을 쓰고 있던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드디여 세계를 향해 정복전쟁의 길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이것이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 드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일본반동들에게 경고하였다.

2002/05/22 조선중앙통신

오만한 횡포

부쉬 미정권은 21일 이른바 《국제테로류형보고서》란것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를 포함한 7개국을 《테로지원국》으로 규정하였다. 부쉬정권이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적대시해 온 경위로 보면 별 놀라운 일은 아니나 악착스러운 대조선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할 기도를 보여 준것으로서 재개가 론의되고 있는 조미회담의 앞길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이 조미회담의 재개에 악영향을 끼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들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의 반테로립장을 인정하기는커녕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하였다. 《대량살상무기》를 거론하면서 테로문제와 억지로 련결시키려고 한것이나 근거도 없이 우리 나라가 테로단체에 소형무기를 판매한 흔적이 있다는 날조선전을 감행해 나선 사실이 이를 뚜렷이 보여 준다.

말하자면 비론리적인 독선적주장과 있지도 않은 사실의 조작으로 《테로지원국》에 묶어 두려 한것이다. 미국이 랭전종식이후 《테로지원국》을 구실로 힘의 정책, 침략적핵정책을 추진, 일극화전략에 매달려 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문제로 말하면 클린톤정권시기 조미협상의 결과 관계개선이 촉진되고 《테로지원국》해제와 관계정상화가 현실화되였다. 부쉬는 이를 뒤집어 엎었다.

《테로지원국》지정에 무슨 합당한 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선을 적으로 삼아 일극화전략의 구실로 써 먹자는 기도이다. 오만한 독선이며 횡포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프리처드가 우리 나라에 왔다고 무슨 진전이 있겠는가.

조미대화는 결코 미국의 오만한 침략정책의 장식품으로 될수 없다. 그런 대화는 긴장격화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

2002/05/24 조선신보

F-15K 선정 압력 새로운 증거 제시

조주형 대령 1차 공판서 변호인단 밝혀

조주형 대령이 뇌물을 받고 F-X사업에 관한 기밀을 누설했다는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과 미국과 국방부측의 F-15K 선정압력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다.

22일 오전 10시 20분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F-X사업 외압 의혹을 폭로한 조주형 공군대령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조주형 대령은 F-X사업에 관한 외압 및 조작의혹을 폭로한 뒤 지난 3월 4일 기무사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후 뇌물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군사기밀누설죄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인정심문 후 조주형 대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최근 국방장관이 추가협상을 통해 F-15K의 가격을 2억불 내린 것과 절충교역비율의 상향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기가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은 이와 똑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는 F-15K로 결정한 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치려 했던 것이고, 자신은 지난 3월 초 가격도 비싸고 조건도 나쁜 F-15K를 선택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국방부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라며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자 국방부의 불공정한 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조주형 대령은 《F-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공군만을 생각하며 노력해왔고, 기밀을 누설했다든가 특정업체를 돕는 행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검찰의 기소사실을 부인했다.

모두진술이 끝난 후 기소사실에 대한 군검사의 피고인 심문이 시작되면서 공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공판의 쟁점은 조주형 대령이 프랑스 다소사의 국내 에이전트로 알려진 이영우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F-X사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는가의 여부였다.

군검사는 조주형 대령이 이영우씨와 만나 2001년 3월 《절충교역 비율을 높이고 데이터링크 기술 이전등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것》을 이야기한 것, 2001년 5월 F-15K의 가격을 43억불로 알려준 것, AE사와 M사의 안테나의 가격차이를 3억 5천불로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대해 조주형 대령은 당시 《공군 선배이자 같은 성당 신자인 이영우씨를 만나 F-X사업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거의 없었고 구체적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면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도 똑같이 요구한 내용들》이라고 대답했다.

군검사의 피고인 심문에 이어 잠시 휴정을 가진 후 속개된 법정에서 변호인단은 230여 항목의 피고인 심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조주형 대령이 2001년 3월 이영우씨를 만나 이야기한 내용은 2000년 6월 11일자로 다소사가 이미 절충교역에 대해 한국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종결된 사실이고, 2001년 5월 보잉사의 F-15K의 가격을 알려줬다는 것 역시 F-15K의 가격자료를 조대령이 6월 13일이 되어서야 받아본 사실을 통해 근거없이 공소사실을 꾸민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번 공판에서 조주형 대령의 비망록 및 업무일지 일부와 미 공군 참모총장 Michael E. Ryan이 한국공군 참모총장 이억수 장군에게 《한미동맹관계》등을 내세워 F-15K구매를 요구하는 서한을 새롭게 증거로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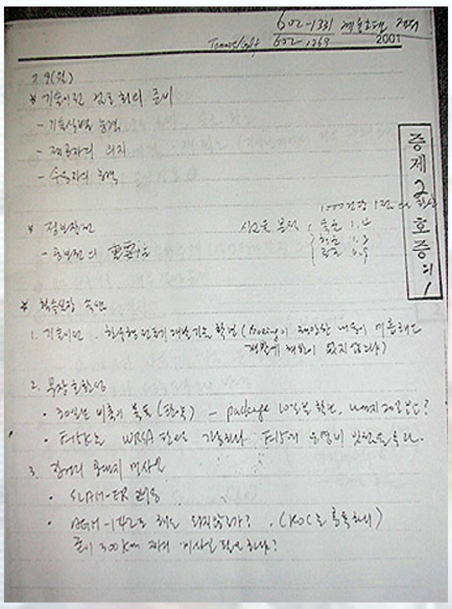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출한 조주형 대령의 7월 9일자 업무일지에는 《획득실장의 속셈》이라는 제목하에 기술이전의 부분에서 《보잉이 제안한 내용이 미흡해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제한이 없지 않느냐》 무장호환성에서 《F-15K는 WRSA탄이 가능하니 F-15에 운영비 잇점을 주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어 앞으로 최동진 획득실장이 특정기종을 염두에 두고 평가단에 외압을 넣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형 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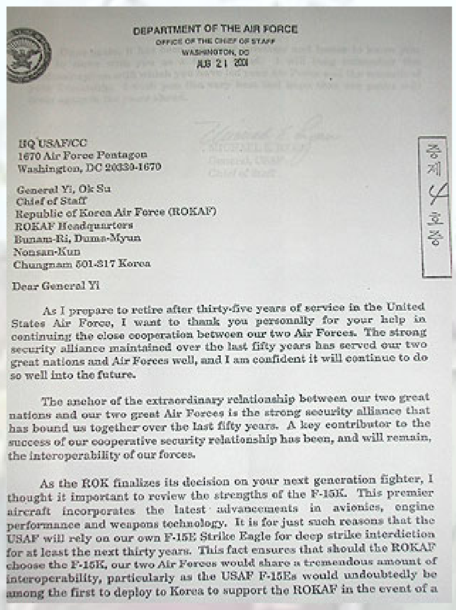
또, 미공군 참모총장의 서한 역시 미국과 한국군 수뇌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F-15K를 구매하도록 집요하게 압력을 넣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어서 F-X사업의 공정성에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은 이후 검찰의 증거자료 제출과 증인선정 후 향후 일정을 재판부가 결정하여 통보해주기로 하고 오후 3시 50분경 마무리됐다.

장동렬 기자
2002/05/22 통일뉴스



조주형 대령의 7월 9일자 업무일지


DEPARTMENT OF THE AIR FORC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WASHINGTON, DC
AUG 21 2001

HQ USAF/CC
1670 Air Force Pentagon
Washington, DC 20330-1670

General Yi, Ok Su
Chief of Staff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OKAF)
ROKAF Headquarters
Bunam-Ri, Duma-Myun
Nonsan-Kun
Chungnam 501-817 Korea

Dear General Yi

As I prepare to retire after thirty-five years of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 want to thank you personally for your help in continuing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our two Air Forces. The strong security alliance maintained over the last fifty years has served our two great nations and Air Forces well, and I am confident it will continue to do so well into the future.

The anchor of the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great nations and our two great Air Forces is the strong security alliance that has bound us together over the last fifty years. A key contributor to the success of our cooperative security relationship has been, and will remain, the interoperability of our forces.

As the ROK finalizes its decision on your next generation fighter, I thought it important to review the strengths of the F-15K. This premier aircraft incorporates the latest advancements in avionics, engine performance and weapons technology. It is for just such reasons that the USAF will rely on our own F-15E Strike Eagle for deep strike interdiction for at least the next thirty years. This fact ensures that should the ROKAF choose the F-15K, our two Air Forces would share a tremendous amount of interoperability, particularly as the USAF F-15Es would undoubtedly be among the first to deploy to Korea to support the ROKAF in the event of a

증제 4호증

미 공군 참모총장 Michael E. Ryan의 서한

연세대 학생들 주적론 철회 기자회견

≪북은 싸워야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형제, 이제 주적론을 철회시키고 통일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야할 때입니다≫

아직 북한 주적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주적론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오후 2시 ≪통일연세 615 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는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이석현 신과대학 학생회장의 사회로 ≪구시대 반북논리 주적론 철회 투쟁 선포 및 옛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주적론 철회 투쟁을 적극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박선태현 문과대학 학생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주적론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북을 계속해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통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자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적론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명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이후 투쟁계획 발표를 통해 6월 5일까지를 집중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6월 1일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과 국방부와 한나라당 앞 릴레이 1인 시위, 29일 공개토론회, 6월 1일 국방부 규탄대회, 6월 5일 신촌지역 통일한마당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동아리 연합회장은 각 정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적개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삭제 혹은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각 정당에 공개적 묻고 27일까지 답을 요청하면서 29일 토론회에 각 당별로 1인씩 패널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대사관 직원아파트를 덕수궁 터에 짓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덕수궁쪽으로 옮겨가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사회계열 새내기 이일표 학생은 ≪한국정부가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주권국이 아닌 것 같다≫며 ≪선배들의 주장처럼 미국의 지배를 끝내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름길≫이지만 ≪신입생들을 보면 운동권에 대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일표 학생은 ≪오늘도 반 친구들에게 수업시간에 집회를 알렸다≫며 ≪가고 싶은데 약속이나 수업이 있어 못간다며 다음에 꼭 같이 가자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하고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덕수궁으로 이동하면서 학생대표가 전철안에서 옛덕수궁터에 미대사관 직원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대해 부당성을 간략하게 알리자 전철 안의 사람들이 거의 모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진숙(인문학부 4학년) 학생은 ≪6.15통일대축전을 준비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자고 하는데 발판을

마련하는 날≫이라고 이날 행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투쟁으로 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적론을 철회시키는 것은 6.15 공동선언을 진척시키고 반북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6.15를 앞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적론 철회와 같은 구체적 실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소수만이 참석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김치관 기자
2002/05/23 통일뉴스

충청총련, 공안탄압규탄성명 발표

9기 한총련 대의원탄압, 이재윤 이성우 차경애씨 구속 규탄

최근에 들어 우리지역에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한총련 이적규정이 여전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반인권적이며 반민족적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가.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이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는 민족의 의지가 반통일세력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을 받고 있으나 서로의 차이를 넘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대세는 앞으로 있을 6.15 민족통일대축전으로 모아져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빛내이게 될 것이다. 교생실습 나갔다가 연행된 경북대 김정희 학우,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연행된 홍익대 학우들을 비롯하여 한총련 대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연행되고 있다. 몇 년째 비인간적인 수배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조치가 과연 정당한가를 보여주는 언론보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 법조인, 교수등이 참가하여 한총련 이적 단체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이제 대세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지난해 이미 불구속으로 조사받은 바 있는 9기 한총련 대의원들(01년 충남대 부총학생회장 외 3명)이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다시 조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간 지금에 와서 다시금 그 학우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한총련 이적규정 해제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앞두고 어떻게든 자신의 명줄을 늘려보려 하는 반통일무리들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이다.

또한 고려대 서창 84학번 이재윤, 95학번 이성우, 단국대 천안 93학번 차경애 등 우리지역 출신 졸업생 선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계속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더군다나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에 의해 탄압을 받아서는 안된다. 인터넷 게시판에 친북적인 글을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주적론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가 공론화되고 남북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해가고 있는 때에 ≪친북적≫이라는 말이 얼마만큼의 무게가 실릴 수 있단 말인가.

남북은 한 민족이며 친북적인 것은 곧 친남적인 것이다.

공안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해묵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지 말라.

이땅에 살고 잇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이 나아갈 길, 자주통일의 길이 대세임을 알고 민족적 대의에 복무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분단과 개인의 안위를 위해 인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진로를 막아나서는 자들이 있다면 통일된 조국에서 떳떳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충청총련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안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적규정 철회하라!

구속된 졸업생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02/05/23 충청총련

KAL858 사건관련 의혹의 사진

국과수, 김현희 공범 김승일 부검감정서 공개

87년 KAL 858기 사건과 관련돼 알 수 없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돼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의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의뢰한 하찌야 신이치(본명 김승일, 69세)의 부검감정서 (87.12.28)≫에는 신원과 출처, 그리고 사유를 알 수 없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김현희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김승일은 87년 11월 29일 KAL 858기 폭파사건의 주범으로 87년 12월 1일 바레인 출입국관리소에서 담배필터에 감춰진 청산이 든 독약앰플을 깨물어 자살했다고 발표되었고, 김승일의 사체는 공범 김현희와 함께 12월 15일 한국에 실려왔다.

국과수가 공개한 김승일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1과장 황적준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교수 이정빈은 87년 12월 17일 서울지방검찰청 김원치 검사 및 이상형 검사로부터 하찌야 신이찌(신원 미확인 상태임)의 부검을 의뢰받고, 1987년 12월 19일 서울 지방검찰청 김원치 검사 및 이상형 검사의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청산염(cyanide, CN-)에 의한 중독사이고 바레인 출입국관리소 공안사무실에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변사자 자신이 말보로 담배 필터에 은닉한 독약을 먹었다 함으로 사망의 종류는 자살이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문서의 독물 검사 결과를 보면 혈액에 3.68㎎/l, 뇌척수액에 6.21㎎/l, 폐 조직에 5.07ppm, 뇌 조직에 4.20ppm 등의 청산염류가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첨부되어 있다.

이번에 국과수가 공개한 부검감정서(문서번호 법의일 23112-10240)는 총 91쪽(일련번호 48-138) 분량이며 치과감정서(2차), 사진 한 장(일련번호 131쪽), 부검감정 : 국문(사진 22장) 및 영문(사진 12장) 각 1부, 치과감정서(1차), 독극물 검사 결과, 혈액형 검사 결과, 손톱의 화약류 검사 결과, 담패 휠타(1매), 유리조각(2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역시 131쪽의 사진 한 장.

문제의 사진은 분명히 김승일의 부검감정서 일괄 문서중의 한 쪽으로 첨부되어 있었고 국과수 관계자들도 이번 부검감정서 공개 이전부터 이 사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즉 131쪽의 문제의 사진은 김승일과 연관됐거나, 아마도 김승일 본인의 사진임에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승일의 부검감정서에 남의 사진을 실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진이 김승일의 사진이라면 그 다음 문제는 69세, 우리나라 나이로 70세에 사망한 북한 공작원 김승일의 훨씬 젊은 사진(대체로 50대 이하로 추정)이 어떻게 안기부가 의뢰하고 국과수가 작성한 공문서에 들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70세에 사체로 인도된 당시 신원 미상의 북한 공작원을 부검하는데 그의 젊은 사진이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다면 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사진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 그의 여권 사진이라든지 그의 유품 중의 한 점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KAL 858기 사건을 추적해온 현준희(49, 전 감사원 직원)씨는 ≪여권 사진도 늙은 모습이며, 이미 공개됐으나 이 사진과 다르고 소지품 목록 역시 공개됐으나 사진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즉 김승일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사진일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도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당시 부검감정서를 직접 작성한 황적준(고려대 법의학과) 교수는 그런 사진을 본적이 없다고 전화 통화 및 직접 면담에서 거듭 밝혔으며, 만일 생존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안기부에서 치아감정시 이빨이 조야하고 해서 북한에서 했던 걸로 추정돼서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담임 검사인 김원치(대검찰청 형사부) 검사장 역시 전화 통화 및 직접 면담에서 문제의 사진을 본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검사장은 ≪당시 그 사건 담당 직후 다른 부서로 옮겨서 끝마무리를 보지 못했고 아마 안기부 쪽에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황적준 박사와 김원치 검사장도 이 사진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부검 담당의사와 담임 검사가 모르는 한 장의 사진이, 그것도 신원미상 북한 공작원의 훨씬 젊었을 때의 사진이 어떻게 부검감정서에 첨부될 수 있었을까?

더구나 이 사진만이 유일하게 부검감정서 전문에 걸쳐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고 사진 번호와 설명도 기재되지 않았다.

국과수 이원태 법의학부장은 ≪당시 사건 경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다≫며 ≪질의를 해도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항공 858 가족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www.kal858.or.kr)≫를 구성해 활동중인 이 사건에 한 장의 사진이 의혹 하나를 더 보태고 있는 셈이다.

70세에 사체로 인도된 김승일의 훨씬 젊은 사진이 어떻게 참고자료로 첨부될 수 있었을까

한편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는 지난 3월 21일 김현희 KAL기 사건 관련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으나 4월 22일자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KAL 858기 사건의 주범 김승일의 부검감정서가 통일뉴스에 의해 최초로 입수, 공개되고 문제의 사진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치관 기자
2002/05/23 통일뉴스

5인 5색,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회. 그리고 밥 굶는 없는 아이들이 없는 사회. 그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공공을 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뿐만 아니라 생태의 도시, 자연이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문옥 민주노동당 후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다섯 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시민의신문≫은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그동안 김민석(민주당)·이명박(한나라당) 후보 양자 토론회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문옥(민노당)·원용수(사회당)·임삼진(녹색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섯 후보가 내비치는 서울과 서울시장은 각 당의 이름만큼이나 서로 달랐다. 김민석 후보는 핵심적으로 ≪생활시정을 펴는 생활시장≫을 내세우며 ≪육아와 노인 관련 예산을 100%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입지전적인 기업가 출신이라는 경험과 경륜을 내세우며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집없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강조했다.

이문옥 후보는 감사원 시절의 양심선언과 지속적인 반부패운동을 강조하며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서울≫과 ≪평등한 서울≫을 역설했다. 원용수 후보는 시종일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서울을 ≪사회주의자의 시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삼진 후보는 ≪녹색후보≫답게 환경 부시장을 설치, ≪건설부터 도시계획·도로·교통·환경을 묶어서 환경 부시장 관할하에 두고, 모든 행정이 환경 부시장의 시각에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초의 5인 합동토론이라서 관심을 모았던 이날 토론회는 기대만큼 치열한 논쟁이나 공방, 재질문이 오가지 않은 채 끝났다. 다섯 후보에 다섯 패널, 사회자까지 참석자가 모두 11명인데 비해 예정된 시간은 1시간30분으로 매우 촉박했기 때문이다.

한 패널이 각 후보에게 한가지씩 질문을 하고 일체의 재질문이나 후보자간 상호 질문 없이 2~3분 내에 답변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촉박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대화 교수는 ≪참석자는 많은데 시간이 워낙 없다보니 토론회 자체가 긴장이 형성될 수 없었다≫면서 ≪다섯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로 진일보하고 만족한 토론≫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 토론회에 이어 23일 밤 11시5분 ≪MBC 100분토론≫에서도 5인 합동토론이 예정돼 있고, SBS도 비슷한 토론을 추진중이어서 향후 소수당 후보의 토론회 참여가 정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0분 토론은 3부로 나뉘어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도 계획돼 있어 좀더 흥미있는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한 기자
2002/05/23 오마이뉴스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3)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최근논문의 비교연구

서론
1. 두 논문의 본질적 특징
2. 두 논문의 의의
3. 두 논문의 구성체계
4.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
1) ≪이론문제≫의 새로운 견해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5.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과 차이점
6. 두 논문에 대한 이견
7. 새로운 이론쟁점
결론

6. 두 논문에 대한 이견

두 논문의 새로운 견해에 대한 이견이 이남운동대오내에 존재한다. 수많은 운동가들의 견해를 일치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격변하는 정세에 대한 인식과 그 정세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전술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일부단위는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논문들이 담고 있는 새로운 견해에 대하여 ≪북미결정론≫으로 규정하고 ≪비주체적≫인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첨예한 이론논쟁을 촉발시켰다. 현재 이러한 이론논쟁은 현장에서의 이견, 구체적으로 정세관, 정치노선, 조직노선, 투쟁노선 상의 이견을 반영하며 종결될 줄 모르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현 이론논쟁이 날카로운 사상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고 실천투쟁과 밀접히 관련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는 총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두 이론가는 일부단위의 비판에 대하여 후속논문에서 차분하고 분명하게 반박하는 한편 나아가 기성이론과 대비하면서 새로운 견해들을 연속 제출하며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이론논쟁의 쟁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전국적 관점과 반국적 관점에 대한 쟁점이다. 필자가 보기엔 일부단위의 견해의 기초에는 반국적 관점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부단위가 제출한 논문을 보면 그 비판논문의 앞부분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반국적 관점에서 특히 ≪이론문제≫의 주요내용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단위의 반국적 관점에 대하여 ≪이론문제≫의 후속편이 전국적 관점에서 전면적인 해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론문제≫에 이미 나와있으므로 생략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것은 둘째, 전략적 통일전선에 대한 쟁점이다. 일부단위가 제출한 논문을 보면 그 개수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논쟁이 정리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단위에서 전략적 통일전선의 개념을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으로 정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론문제≫에서 제출한 지역통일전선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결과 현장에서도 조직노선, 투쟁전술면에서의 심각한 견해차이가 반복심화되고 있다.

그것은 세째, 통일전선운동의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에 대한 쟁점이다. 일부단위에서 운동동력을 중심과 보조, 주도와 방조로 나누는 것을 주체성과 책임성 문제로 제기한 데 대하여 ≪이론문제≫나 ≪전략적 과업≫은 이를 역량관계상의 구분이라며 명확히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전략적 과업≫은 중심동력이 주체적이고 우월한 반면 보조동력은 비주체적이며 열등하다는 사고는 소아병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네째, 민족해방혁명론의 쟁점이다. 일부단위에서는 ≪이론문제≫가 조선혁명의 성격을 단일하게 민족해방혁명이라고 규정한 부분과 조선혁명과 두 지역혁명의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론문제≫의 후속편이 일부단위의 이러한 오해와 반국적 관점을 재차 반박할 것인지 아니면 생략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것은 다섯째, 혁명영도체계론의 쟁점이다. 일부단위에서는 ≪이론문제≫가 전위당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론문제≫의 후속편에서 분명하고 상세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일부단위의 비판을 충분히 예상하고 집필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향후 이론논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이론논쟁이 가지는 특징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특징은 첫째로, 현 이론논쟁이 결국 주체의 전략전술의 기성이론과 새로운 이론과의 대결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이론논쟁은 두 이론가의 논문을 둘러싸고 기성이론을 따르는 일부단위와 새로운 이론을 제출한 두 이론가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연 기성이론을 보완할 만큼 정세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두 이론가의 새로운 이론들이 기성이론의 핵심을 계승하고 정세변화에 맞게 발전시킨 진리인지의 여부가 이론논쟁의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그 특징은 둘째로, 현 이론논쟁이 본질상 사상투쟁이라는 점이다. 현 이론논쟁은 각각 전국적 관점과 반국적 관점에 서서 서로를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로 비판하며 날카로운 사상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특징은 세째로, 현 이론논쟁이 다방면에서 걸쳐서 매우 폭 넓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이론논쟁은 정세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운동대오의 정치노선, 조직노선, 투쟁노선을 포괄하며 주체의 전략전술의 주요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 특징은 네째로, 현 이론논쟁이 끊임 없이 심화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이론논쟁은 초기에 통일전선론에 집중되더니 지금은 전위당론으로 이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전선론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관련하여 심화된다든지, 민족해방혁명론이 전국적 관점에서 재조명된다든지, 일반민주주의단계론과 민족통일기구론이 새롭게 제출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을 말해준다.

그 특징은 다섯째로, 현 이론논쟁이 철저하게 두 이론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이론가는 일부단위의 비판에 유념하면서도 자신의 새로운 견해들을 연속 제출하며 새로운 단계로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일부단위는 두 이론가의 논문의 개념과 이론을 오해하는 한편 그 심화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두 이론가는 자신의 견해들에 대한 이견까지도 예상하거나 심지어 유도하면서 이남민족민주대오 내의 이론논쟁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키고 있다.

그 특징은 여섯째로, 현 이론논쟁이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노선논쟁의 반영이라는 점이다. 현 이론논쟁은 단순한 이론상의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치열한 노선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 통일연대를 비롯한 제 연합전선의 위상과 역할을 비롯하여 향후투쟁의 전략과 전술, 당면집중타격지점 등과 관련한 조직노선, 투쟁노선 상의 논쟁이 이론논쟁과 연관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 특징은 일곱째로, 현 이론논쟁에서 두 이론가의 새로운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두 이론가의 논문에 대한 일부단위의 이견이 초기에는 일정한 지지를 받았으나 두 이론가의 후속논문들이 속속 발표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한호석소장의 논문들이 전국연합의 기관지인 ≪민≫지 11월호와 12월호에 연속적으로 실리는가 하면 최성원동지의 논문들에 대해 지지하는 운동가들이 확산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다. 실제로 ≪이론문제≫에 대한 일부단위의 최근비판은 ≪두개전선≫에 대한 비판만큼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 특징은 여덟째로, 현 이론논쟁에 임하는 자세에서 두 이론가가 일부단위보다 확고히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두 이론가는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제 3자가 보기에도 심하게 곡해하고 비판하는 일부단위의 견해에 대하여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면서도 침착하게 반박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는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상대에 수준과 정서를 이해하며 아량 있게 대응하는 두 이론가의 논쟁자세는 귀감이라고 할 것이다.

7. 새로운 이론쟁점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방대하고 미묘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이론문제에서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문제≫로 야기된 새로운 이론쟁점으로서, 혁명영도체계와 관련하여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관계문제이다. ≪이론문제≫는 통일전선이론, 민족해방이론의 기성이론을 정세변화에 맞게 새롭게 해명하는 한편 이남운동대오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전위당론의 재해명을 전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즉 ≪이론문제≫는 조선노동당과 이남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의 조직적 결합이라는 혁명영도체계를 수립할 때에만 이남민족민주전선을 강고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자주적 민주정부도 수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 차원에서 민족해방혁명역량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출한 것이며 그만큼 통일혁명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이남운동대오 내의 초보적 상식과 같은 한민전의 독자적 지위에 대한 전격적인 문제제기로 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론문제≫가 제출한 혁명영도체계론은 이와 관련한 향후 이론논쟁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최성원동지가 ≪두개전선≫에서부터 이러한 이론논쟁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고 보며, 앞으로 ≪통일여명≫편집국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든 일부단위의 비판에 대한 반박형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필자를 비롯하여 ≪통일여명≫편집국은 전위당 관련 이론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자기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발표는 최성원동지의 후속논문과 그 반응을 보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이론문제≫로 야기된 새로운 이론쟁점으로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견해이다. ≪이론문제≫는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는 통일전선이 단순한 통일전선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정치

적 생명체의 차원으로 상승발전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견해가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개념 차이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이북의 경우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조선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간의 통일전선을 현실변화에 맞게 새롭게 규정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그리고 인전대에 대한 견해가 보완정립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에 대한 일부단위의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론문제≫의 후속편이 응당한 이론적 해명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세째, ≪전략적 과업≫으로 야기된 새로운 이론쟁점으로서, 일반민주주의에 대한 견해이다. 과연 한호석소장이 제출한 일반민주주의단계가 꼭 필요한지 민중민주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다 심화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호석소장은 이전논문(≪통일방안 논의와 통일경로 전망≫, 1996.5)에서 일반민주주의를 부르조아민주주의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필자가 보기엔 일반민주주의는 부르조아민주주의범주 안에 포섭되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하여 왔던 일반적인 의미의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며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전략적 과업≫이 밝혔듯이 일반민주주의는 파쇼적인 악법과 기구를 철폐하며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운동대오 일각에서는 민중민주주의를 자주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념상 교통정리도 필요할 것이다.

네째, ≪전략적 과업≫으로 야기된 새로운 이론쟁점으로서, 민족통일전선의 두 개의 성격에 대한 견해와 민족자주와 민족해방의 상호관계에 대한 견해이다. 현재 이남 활동가들이 민족통일전선과 민족자주, 민족해방이라는 개념자체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략적 과업≫의 개괄적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반제자주적 성격의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상호관계와 함께 민족자주위업과 북측 지역혁명의 상호관계와 같은 부분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필자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의의와 그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도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개전선≫에서는 전략적 타격투쟁과 전술적 타격투쟁의 개념으로 반정부투쟁과 민주화운동의 차이점을, ≪이론문제≫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의 개념과 관련하여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전략적 과업≫을 포함하여 한호석소장의 많은 논문에서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국내 반통일세력)과 개혁세력(통일지향세력)이라는 개념으로 친미예속세력을 둘로 구분하여 대응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현정권이 개혁성과 화해협력성을 견지하는 한 온전한 민주정권도 군사정권과 같은 파쇼정권도 아니며 현재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은 그 주된 과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운동대오의 타격대상은 현정부가 아니라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세력이며 투쟁과업은 통일민주운동의 기본과제인 국가보안법철폐라고 할 수 있다. 부언하면 우리 운동대오의 당면과업은 정권퇴진투쟁이라는 반정부투쟁이 아니라 반민주반통일세력제압과 국가보안법철폐라는 것이다. 우리 운동대오가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의의와 그 상호관계, 현정부와 반민주반통일세력을 대하는 입장에 대한 견해 차이를 시급히 극복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보다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정세가 변하면 이론도 변할 수밖에 없다. 주체의 전략전술도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객관정세의 변화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발전하는 것이다.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은 조국의 혁명정세, 통일정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지금은 이러한 정세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당시의 기성이론을 보완하며 새롭게 정립할 때이다. 정세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이 없는 한 승리는 요원하며 패배는 불가피하다. 정세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전술론을 이남운동대오에 제출한 논문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단연 돋보이는 수작 논문이다. 두 논문은 첨예한 이론논쟁을 촉발하고 해결하는 한편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작이기도 하다. 두 이론가의 새로운 견해는 더욱 심화발전되어야 하며 갈수록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이다. 이 글은 두 이론가의 새로운 견해와 적극적인 탐구자세에 대한 동지적 지지와 찬사의 표현으로 된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6호)

광 고

김정일위원장 연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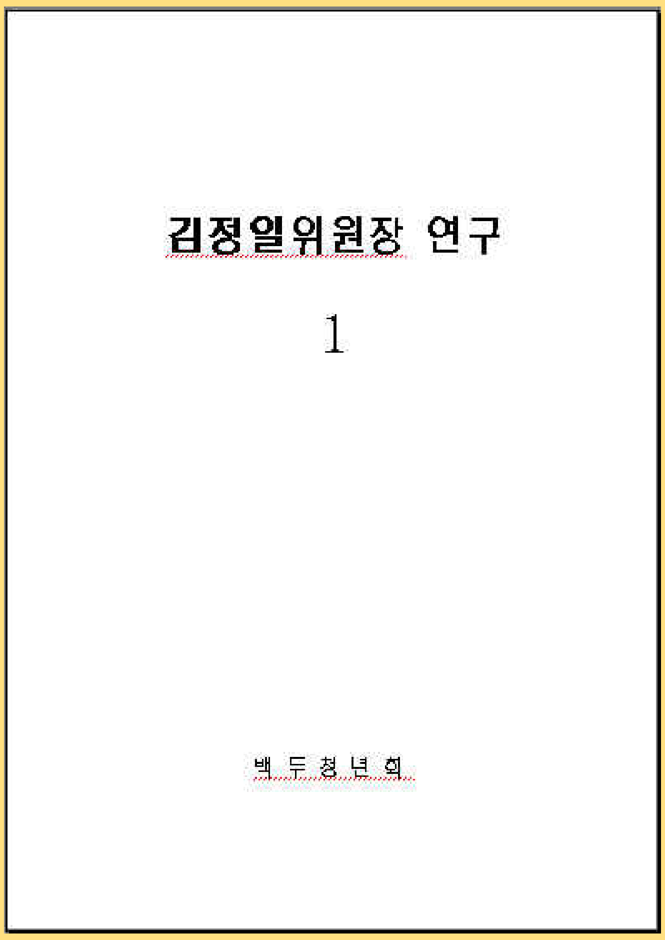
백두청년회, 김정일장군님의 실화집을 15만명에게 전송!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편집국 보도 97호)

백두청년회는 최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남측청년주체주의자대오인 백두청년회는 며칠전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 풍모를 담은 실화집을 15만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 실화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자로서의 비범한 예지와 능력에 대한 수많은 일화를 엄선해 담고 있습니다.

이 실화집은 대중적으로 발송되는 점을 고려하여 호칭, 존칭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 실화집의 제목은 ≪**김정일**위원장 연구 1≫입니다.